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이경직·김상엽 역)

워필드 · 제4장 영감

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이경직·김상엽 역, CLC) 제4장 '영감', 텍스트판 73-99쪽. 원래는 1915년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ISBE)에 실린 'Inspiration' 항목이다(각주 1).

🧭 흐름 한눈에

워필드는 먼저 '영감'이라는 낱말의 역사를 살핀다. 그리고 이 말의 성경적 뿌리인 헬라어 θεόπνευστος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쉬셨다'는 뜻임을 밝힌다. 곧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산물이라는 말이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3:16, 베드로후서 1:19-21, 요한복음 10:34-35 세 본문으로 세 가지를 차례로 세운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저자들은 성령께 '실려' 말했으며, 성경의 권위는 낱말 하나에까지 미친다. 그다음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서로 바꿔 쓰는 습관을 모은다. 이로써 그들에게는 성경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었음을 보인다. 후반부는 인간 저자의 몫을 다룬다. 하나님은 섭리로 재료와 저자를 오래 준비하셨고, 마지막에 사람의 능력을 넘는 성질을 주는 특별한 활동, 곧 좁은 뜻의 '영감'을 더하셨다. 끝으로 영감을 계시의 한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육신 비유의 한계를 짚은 뒤, 이 영감이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미친다고 결론짓는다.

📜 절별 정리

📜 1. 용어의 의미

영어 'inspire'와 그 파생어는 14세기 초 프랑스어에서 중세 영어로 들어왔다. 처음부터 몸에 관한 뜻, 비유적 뜻, 세속적 뜻, 종교적 뜻으로 두루 쓰였다. 워필드는 이 다양한 쓰임 밑에 공통된 느낌 하나가 깔려 있다고 본다. 바깥에서 온 힘이 어떤

특히 라틴어 성경 불가타의 낱말 inspiro(숨을 불어넣다)와 inspiratio(숨을 불어넣음)가 정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감 받은 사람들을 통해 내신 산물이라는 뜻이다. '저자가 영감되었다'는 말은 성령이 그들에게 작용하셔서 그 글에 사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생겼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영감은 “성령이 저자들에게 행하신 초자연적 영향이며, 그 결과 그들의 글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을 만함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1. 영어 inspire는 14세기 초 프랑스어에서 유입
2. 공통 뜻: 바깥 힘이 본성 이상의 결과를 냄
3. 신학 용어가 된 것은 16세기 후반
4. 신학적 뜻을 정한 것은 불가타의 inspiro
5. 정의: 성령의 영향 → 글의 신적 신뢰성

> **(직접 인용 없음)**
> 낱말의 역사를 다루는 절이라 본문에 구절을 들지 않음(각주의 불가타 용례 목록은 생략)

📜 2. 성경에서의 용례

불가타의 낱말들은 불가타를 대본으로 한 영어 성경에 흘러들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이 발전하면서 점점 자리를 잃었다. 흠정역(KJV)은 정경 안에서 이 낱말을 욥기 32:8과 디모데후서 3:16 두 곳에만 썼다. 개역 영어 성경(RV)은 욥기를 '숨결'로 바꾸어, 디모데후서 한 곳만 남았다. 워필드는 그 마지막 한 곳도 오역이라고 말한다. 헬라어 θεόπνευστος(테오프네우스토스)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으로 내쉬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미 쓰인 글에 하나님이 숨을 넣으셨다는 뜻도 아니고, 사람에게 숨을 넣으셔서 그 결과로 글이 나왔다는 뜻도 아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적 숨으로 나온 결과물이라는 뜻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히브리어 רוּחַ 루아흐 '바람·영', נְשָׁמָה 네샤마 '숨')은 거스를 수 없는 창조 능력을 가리킨다(시편 33:6). 그래서 바울은 이 낱말로 성경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가장 강하게 말한 셈이다. 다만 이 구절은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2. RV는 욥기를 '숨결'로 바꿈
3. θεόπνευστος = '하나님이 내쉬신'
4. 성경은 하나님의 숨에서 '나온' 산물
5. 이 구절은 '어떻게'보다 '누가'를 말함

> **욥기 32:8**
> KJV가 'inspiration'을 쓴 곳. RV와 우리말 성경은 '숨결·기운'으로 옮김
>
>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 **디모데후서 3:16**
> θεόπνευστος가 나오는 핵심 구절. 성경은 '하나님이 내쉬신' 것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시편 33:6**
> 하나님의 '입 기운'이 만상을 지었다. 하나님의 숨은 곧 창조 능력
>
>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 3-1. 중요 구절 연구 — 디모데후서 3:16

바울은 디모데가 구원의 진리를 배우면서 받은 혜택을 말하는 중이다. 디모데에게는 좋은 선생들이 있었고(3:14),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다(3:15). 3:15의 '성경'은 ἱερὰ γράμματα(히에라 그람마타, '거룩한 글')다. 이 말은 신약 다른 곳에는 없고, 필로와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권위 있는 책 전체를 가리킬 때 쓰던 전문 용어다. 바울은 이 혜택을 더 크게 보이려고 성경의 본성을 밝히는 한 문장을 덧붙인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모든 거룩한 목적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장에는 번역

'하나님이 내쉬신 성경은 유익하기도 하다'로 옮길지다. 워필드는 어느 쪽을 택해도 결론은 같다고 본다. 성경의 가치가 신적 기원에 있고, 그 기원이 성경 전체에 스며 있다는 결론이다. 그가 고르는 번역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내쉬신 것이므로 또한 유익하다”이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어떤 책이 성경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다루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1. 3:15 '성경'은 유대 경전 전체를 가리키는 말
2. 성경의 가치는 신적 기원에서 나온다
3. '각 부분/전체' 논쟁은 결론을 바꾸지 않음
4. 하나님이 내쉬셨으니 유익하다
5. 정경 범위·영감 방식은 이 구절의 주제 아님

> **디모데후서 3:14**
> 디모데에게 좋은 선생들이 있었다는 배경
>
>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 **디모데후서 3:15**
> 어려서부터 안 '거룩한 글'(구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줌
>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디모데후서 3:16**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내쉬신 것이라는 신적 기원 선언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디모데후서 3:17**
> 그 기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영적 가치
>
>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 3-2. 중요 구절 연구 — 베드로후서 1:19-21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전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님을 확신시키려 한다(1:16). 먼저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본 목격자들의 증언을 내놓는다(1:16-18). 그리고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한다(1:19). 워필드는 목격자 증언과 견줄 만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고 본다. 1:20의 “성경의 모든 예언”도 일부 예언 단락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성경 전체가 다른 곳에서도 '예언'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는 성경이 사람이 연구하고 궁리해서 낸 결과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는다. 1:21은 부정(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과 긍정(성령께 실려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을 함께 담는다. '감동하심을 받은'으로 번역된 φερόμενοι(페로메노이, '실려 가는')는 안내·지도·통제보다 훨씬 강한 말이다. 실려 가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싣는 이의 힘으로, 자기 목표가 아니라 싣는 이의 목표로 간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 나왔어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다. 이 본문의 강조점은 영적 유익보다 신적 신뢰성, 곧 목격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데 있다.

1. 목격자 증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2.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 전체일 가능성
3. 기원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4. φερόμενοι: 안내가 아니라 '실려 감'
5. 강조점은 유익보다 신적 신뢰성

> **베드로후서 1:16**
> 사도의 전파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출발점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 **베드로후서 1:17-18**
> 변화산의 '지극히 큰 영광'을 본 목격자 증언
>
>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받으셨느니라 [18]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1:19

목격보다 '더 확실한 예언'으로서의 성경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후서 1:20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궁리에서 나오지 않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후서 1:21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께 실려 하나님께 받아 말함. 영감 방식의 단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3-3. 중요 구절 연구 — 요한복음 10:34 이하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하시자(요한복음 10:30)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돌을 들었다(10:33). 예수님은 시편 82:6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로 변론하신다. 직무 때문에 '신들'이라 불린 사람들도 신성모독이 아니라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더더욱 신성모독일 수 없다는 논리다. 워필드는 예수님이 시편을 “너희 율법”이라 부르신 데 주목한다. 이는 성경 전체에 율법의 구속력을 주신 것이고, 유대인과 신약의 흔한 화법이었다. 율법·예언·성경은 사실상 같은 말이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10:35)에서 '폐하다'(λύω 뤼오, '풀다·무효로 하다')는 안식일 법을 어긴다고 할 때 쓰는 말이다. 곧 성경이 말한 것은 무를 수도 [illegible]

표현에까지 미친다. 이것은 상대의 생각에 맞춰 준 논증일 뿐이라는 반론(ad hominem)에, 워필드는 두 가지로 답한다. 이것은 양쪽이 함께 인정하는 성경이라는 공통 전제에서 출발한 논증(e concessu)이고, 고립된 예가 아니라 예수님과 신약 저자들의 일관된 태도라는 것이다. 시험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로 맞서신 일과 부활 뒤의 가르침이 그 증거다.

1. 시편을 '율법'이라 부름 → 성경 전체가 구속력
2. 율법·예언·성경은 사실상 같은 말
3. '폐하다'(λύω) = 무효로 하다·거스르다
4. 권위가 낱말 하나의 표현에까지 미침
5. 상대 맞춤 논증 아닌 공통 전제 논증

> **요한복음 10:30, 33**
> “나와 아버지는 하나” 발언과 신성모독 고발이라는 배경
>
> **요한복음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
> **요한복음 10: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 **요한복음 10:34-36**
> 시편을 '너희 율법'으로 인용하며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하심
>
>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 **시편 82:6**
> “너희를 신이라” — 논증 전체가 이 낱말 하나에 걸림
>
>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유대인도 시편 등을 '율법'이라 부름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15:25

시편 35:19를 '율법'에 기록된 말로 인용(워필드가 가리키는 장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4:21

바울이 이사야를 '율법'으로 인용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로마서 3:19

바로 앞의 시편 인용들을 '율법'이라 부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4:21-22

창세기 이야기를 '율법'으로 인용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요한복음 5:18 · 요한복음 7:23 · 마태복음 5:19

'폐하다'가 법을 어긴다는 뜻으로 쓰이는 예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요한복음 7:23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마태복음 5: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4:4, 7, 10

시험 앞에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로 맞서심

마태복음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4:25-27, 44-46

부활 후 율법·선지자·시편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심

누가복음 24:25-27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44-46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 4. 성경의 성취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포

예수님은 특히 마지막 가르침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필연성을 거듭 강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다가올 일을 확신 있게 예고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마태복음 26:31). 고난을 피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며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마태복음 26:54). 성경을 덜 믿는다고 꾸짖으신 대상은 엠마오의 두 제자(누가복음 24:25)만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에게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는 자신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5:39-40). 워필드는 이 말씀을 경멸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읽는다. 예수님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거기서 영생을 기대하는 것도 옳다고 인정하신다. 실패의 원인은 성경이 아니라, 마음에 수건을 덮고 읽어서 (고린도후서 3:15-16) 성경 읽기의 마땅한 종착지인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

1.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 성경을 근거로 앞일을 확신 있게 예고하심
3. 고난도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받으심
4. 성경 연구와 영생 기대는 옳다고 인정
5.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안 오는 것

> **마가복음 14:49 · 요한복음 13:18 · 요한복음 17:12**
>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반복된 선언
>
> **마가복음 14: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마가복음 9:12-13

인자와 엘리야에 관해 기록된 대로 된다

12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31 · 마가복음 14:27

“기록된 바”를 근거로 제자들의 흩어짐을 예고

마태복음 26: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마태복음 26:54

고난을 피할 수 있었지만 성경 성취를 위해 받으심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누가복음 24:25

선지자들의 말을 다 믿지 않는 자를 꾸짖으심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 종착지는 그분께 오는 것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고린도후서 3:15-16

수건 덮인 마음이 실패의 원인이며, 주께 돌아가면 벗겨짐

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 5. 하나님이 저자이심을 증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경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데 놀라셨다. 그 이유는 너무 따지며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을 단순하고 진심으로 믿지 않아서였다. 예수님은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며 시편 118편으로 메시아가 버림받을 것을 보이셨다. 성전에서 아이들의 호산나에 화난 이들에게는 시편 8편으로 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든 오해의 뿌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예는 이혼 논쟁이다. 예수님은 창세기 2:24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이라며 인용하신다. 그런데 이 문장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직접 발언으로 나오지 않고, 서술자의 설명으로 나온다. 즉 성경에 하나님의 말이 '들어 있다'가 아니라, 성경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이라는 전제다. “예수님은 그 시대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는 반론에 워필드는 이렇게 답한다. 그 견해가 당대의 견해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가지신 지식으로 그것이 참임을 아셨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뒤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덧붙였다”는 반론에는, 이 증언이 너무 일관되고 세밀하며 복음서들과 그 밑의 초기 자료를 모두 관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 확실하다고 답한다.

1. 오해의 뿌리는 성경을 모르는 데 있다
2. 창세기 2:24의 서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

4. 부활 후에도 같은 성경관 → 시대 적응 아님

5. 모든 복음서 자료를 관통 → 덧붙임 아님

마태복음 21:42 · 마가복음 12:10

시편 118:22로 메시아가 버림받음을 보이심

마태복음 21:4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마가복음 12:10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태복음 21:16

아이들의 찬미를 시편 8:2로 변호하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22:29 · 마가복음 12:24

성경을 모르면 오해한다

마태복음 22: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가복음 12: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태복음 19:4-6

창세기 2:24를 창조주의 말씀으로 인용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창세기 2:24

서술자의 문장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됨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가복음 10:5-9

같은 구절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인용

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6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6:16

바울도 같은 구절을 "그가 이르시되"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누가복음 24:25, 46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기록되었으니"를 믿음의 근거로 삼으심

누가복음 24: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가복음 24: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신약 저자들의 증언은 예수님의 증언과 효과가 똑같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경관을 제자들의 것으로 돌리려 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도들도 “성경”, “기록된 바”라는 짧은 말로 성경에 적힌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전제를 드러낸다.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었으되”로 시작하듯 복음서 선포도 “기록된 것과 같이”로 시작한다. 사도들은 복음의 정당성, 거룩한 삶,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 일상의 의무를 모두 성경으로 세웠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서로 거울처럼 맞서는 두 종류의 화법이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이 했다고 말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로마서 9:17)가 그 예다. 다른 쪽에서는 성경 본문의 말을 하나님이나 성령이 하셨다고 말한다. 워필드는 이것이 단순한 의인화가 아니라, 성경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깊은 확신에서 나온 화법이라고 본다.

1. 사도들도 “기록된 바”로 논쟁을 끝냄
2. 복음·윤리·의무를 모두 성경에 근거
3. '성경이 말한다' =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4.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말로, 성경 말을 하나님 말로
5. 의인화가 아니라 동일시에서 나온 화법

> **마가복음 1:3**
>
> 복음서 선포도 “기록된 것과 같이”로 시작
>
>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 **고린도전서 15:3-4**
>
>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남
>
> [3]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 **사도행전 17:2-3, 11**
>
>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으로 그 진리를 검증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7: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드로전서 1:16

거룩한 삶의 근거가 성경의 요구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2:8

사랑의 '최고의 법'을 성경으로 명령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도행전 23:5 · 로마서 12:19

구체적 의무를 성경 인용으로 제시

사도행전 23:5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로마서 12: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16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유다 사건으로 성취됨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성경이 이르시되”라고 함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8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성경이 미리 알고” 전했다고 함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5

성경은 헛되이 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히브리서 3:7

시편 95:7의 말을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함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사도행전 4:25

시편 2:1을 하나님이 다윗의 입으로 성령을 통해 하신 말로 인용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도행전 13:34-35

이사야 55:3과 시편 16:10을 하나님이 하신 말로 인용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 7. 하나님과 성경의 동일시

이 동일시는 여러 구절을 줄줄이 잇는 '연쇄 인용'에서 가장 뚜렷하다. 히브리서 1:5-13의 인용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소개된다. 그런데 구약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화자인 구절이 있다(시편 2:7, 사무엘하 7:14, 시편 110:1). 반대로 하나님이 3인칭으로 언급되거나 오히려 하나님께 말을 거는 구절도 있다(신명기 32:43 70인역 또는 시편 97:7, 시편 104:4, 시편 45:6-7, 시편 102:25-27). 그런데도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돌려진다.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성경의 말이라는 것이고, 성경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5:9-12도 비슷하다. “기록된 바”, “또 이르되”, "또“, ”또 이사야가 이르되"로 네 구절을 잇는다. 흥미롭게도 사람 저자의 이름(이사야)이 붙은 마지막 구절만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구절이다. 누구의 이름을 붙이느냐가 '누가 말했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1. 연쇄 인용에서 동일시가 가장 뚜렷
2. 화자가 하나님이든 아니든 모두 '하나님 말씀'
3. 근거는 하나: 그것이 성경의 말이라는 사실
4. 로마서 15장도 같은 방식
5. 저자 이름 표기와 실제 화자는 별개

> **히브리서 1:5**
>
> 시편 2:7과 사무엘하 7:14 — 원래 하나님이 화자인 말씀
>
>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1:7

시편 104:4 — 하나님이 3인칭으로 나오는 구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히브리서 1:8-9

시편 45:6-7 — 하나님께 말을 거는 구절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1:10-12

시편 102:25-27 — 하나님께 말을 거는 구절

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히브리서 1:13

시편 110:1 — 하나님이 화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로마서 15:9-12

시편 18:49, 신명기 32:43, 시편 117:1, 이사야 11:10을 잇는 연쇄 인용

> [9]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 8. 하나님의 신탁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신탁'(τὰ λόγια τοῦ θεοῦ 타 로기아 투 테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필로는 성경을 흔히 '거룩한 신탁'이라 불렀고, 신약 저자들도 이 관념을 나눠 가졌다. 바울은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신탁)을 맡은 것”이라고 말한다(로마서 3:2). 여기서 신탁은 일부 계시 단락이 아니라 직접적인 신적 계시로서의 성경 전체다. 이 시각에서 성경은 지금도 독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음성이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되었으되” 대신 “일렀으되”로도 인용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말씀하신다”라는 현재형으로도 인용된다. 주어 없이 “그가 이르되”(λέγει 레게이)라고만 해도 화자가 하나님임이 당연하게 이해된다. 피타고라스 학파나 플라톤주의자가 스승을 “그가 말했다”로 인용한 것, 구약이 문맥상 분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한 것과 같은 화법이다. 성경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는, 바울이 단수형 '자손' 한 낱말에 논증을 거는 데서 드러난다(갈라디아서 3:16). 예수님도 시제(마태복음 22:32)와 낱말(마태복음 22:43)에 논증을 거셨다. 워필드의 정리는 이렇다. '성경', '기록되었으되'는 성경의 권위를, '신탁', '이르되'는 성경의 신성을 앞세운다. 권위는 신성에 근거하고, 신성은 신뢰성으로 드러난다.

1. '하나님의 신탁' = 직접 계시인 성경 전체
2.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는 살아 있는 음성
3. 현재형 “말씀하신다”·주어 없는 “이르되”

5. 권위는 신성에서, 신성은 신뢰성으로 드러남

로마서 3:1-2

유대인의 으뜸 특권이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것

[1]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히브리서 5:12 · 사도행전 7:38

같은 '신탁' 표현이 쓰인 곳

히브리서 5:12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사도행전 7: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누가복음 4:12

마태복음 4:7의 “기록되었으되”를 “일렀으되”로 바꿔 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15 · 로마서 4:18

“일렀으되/말씀하신 대로”식 인용

히브리서 3: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로마서 4: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3:7 · 사도행전 13:35 · 히브리서 1:7-10

성경을 현재형 “말씀하신다”로 인용

사도행전 13:35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7-10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로마서 15:10 · 고린도후서 6:2 · 에베소서 4:8 · 에베소서 5:14

주어 없는 “이르되” — 화자는 당연히 하나님

로마서 15:10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고린도후서 6: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에베소서 4:8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에베소서 5: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욥기 20:23 · 욥기 21:17 · 시편 114:2 · 애가 4:22

구약도 하나님이 주어임이 분명할 때 이름을 생략

욥기 20:23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 같이 쏟으시리라

욥기 21:17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갈라디아서 3:16

'자손'이 단수라는 문법 형태에 논증을 검

>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22:32

예수님이 “나는 ~의 하나님이로라”의 현재 시제에 논증을 거심

>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22:43

다윗이 '주'라고 부른 낱말 하나에 논증을 거심

>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 9. 성경에 담긴 인간적 요소

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이 근본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것을 강조하면서도, 성경이 사람을 통해 왔다는 사실을 흐리지 않는다. 다만 성경을 '하나님 몫'과 '사람 몫'으로 나누지 않는다. 형식과 내용, 모든 세부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동시에 그 전체가 사람을 통해 왔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적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측면'이 있다. 베드로후서 1:21이 이를 압축한다. 주도권은 모두 하나님께 있지만, 말하는 이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마가복음 12:36)라며 인용하셨다. 베드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사도행전 1:16)라고 말한다. 여기서 실제 화자는 성령이고, 다윗의 입은 도구다. 신약 저자들은 성경을 “모세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로 자유롭게 인용했다. 사람 저자 자신의 말이든 그가 전한

너무 완전해서 사람의 특성이 말씀의 순수함을 해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 저자의 마음을 함께 드러낸다.

1.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 전적으로 사람 경유
2. 인간적 '부분'은 없고 인간적 '측면'은 있다
3. 성령이 화자, 다윗의 입은 도구
4. “모세가/다윗이/성경이/하나님이 이르되”는 같은 말
5. 방식은 설명 불가, 결과의 순수함은 확실

베드로후서 1:21

주도권은 하나님, 말하는 이는 사람 — 이중 저작의 압축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마가복음 12:36

다윗이 '친히' 말했지만 '성령 안에서' 말함

>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16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심(도구를 나타내는 전치사)

>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4:24-25

천지를 지으신 주재가 다윗의 입으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심

> 24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마태복음 13:35 · 마태복음 2:5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13:35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마태복음 15:7 · 마가복음 7:6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하였도다"로 인용

마태복음 15: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마가복음 7:6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10 · 로마서 10:5, 19-20

모세·이사야의 이름으로 인용하는 예

마가복음 7:10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로마서 10: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로마서 10:19-20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활동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먼저 '영감'이라는 말이 주는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은 성경 용어가 아니고, 그 어원('불어넣다')도 성경이 그리는 그림과 딱 맞지 않는다. 성경 저자들은 성경을 사람이 쓴 글에 성령이 숨을 불어넣거나 성질을 더해 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만들어 내신 산물로 생각한다. 저자들은 하나님께 열정을 받아 더 높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을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성령의 거스를 수 없는 능력에 실려 움직였다. 결과물만 보면 두 생각의 차이가 작아 보인다. 하지만 하나는 사람 쪽에서, 하나는 하나님 쪽에서 성경의 기원을 보는 관점이라 태도가 크게 다르다. '영감'이라는 말은 이미 굳어져 바꿀 수 없다. 그러니 그 뜻을 어원이 아니라 성경의 설명에서 정해야 한다. 성경의 그림은 '불어넣기'보다 '실어 나르기'에 가깝고, 숨의 비유를 쓸 때도 그것은 '내쉬심'이지 '불어넣으심'이 아니다.

1. '영감'은 성경 용어가 아니다
2. 어원('불어넣다')과 성경의 그림이 다르다
3. 사람 글에 숨을 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물
4. 뜻은 어원이 아니라 성경 설명에서 정한다
5. 비유는 '불어넣기'보다 '실어 나르기'·'내쉬심'

> **베드로후서 1:21**
> 앞에서 본 '실려 감'이 성경적 그림의 기준
>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디모데후서 3:16**
> 앞에서 본 '내쉬심'(θεόπνευστος)이 숨 비유의 바른 방향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11. 하나님 편에서의 기원에 관한 일반적 문제

'실어 나르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따지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드러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경 전체가 생겨난 복잡한 과정 전체의 문제다. 성경은 완성품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시간 속의 다른 모든 산물처럼 오랜 과정이 함께 작용해 나온 결과다. 먼저 재료가 준비되었다. 기록될 거룩한 역사, 표준이 될 신앙 체험, 예배에서 쓰인 계시의 논리적 정리, 그리고 점진적 계시(하나님이 진리를 단계적으로 더 드러내심) 자체가 그것이다. 저자도 준비되었다. 그들은 몸·지성·영성 면에서 평생에 걸쳐, 아니 먼 조상 때부터 준비되었다. 그래서 알맞은 사람이 알맞은 때와 장소에 알맞은 재능과 동기를 갖추고 서게 되었다. 워필드는 흔한 오해의 그림도 짚는다.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 쓸 만한 사람을 애써 찾으신 뒤, 그 사람의 성향을 억지로 눌러 가며 자기 뜻을 받아 적게 하셨다는 그림이다. 그런 일은 없었다. 하나님은 바울서신을 주시려고 바울을 준비하셨고, 그 바울은 그 서신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

1. 영감은 긴 기원 과정과 떼어 볼 수 없다
2.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완성품이 아니다
3. 재료 준비: 역사·체험·정리·점진적 계시
4. 저자 준비: 평생, 조상 때부터
5. 억지로 받아 적게 하신 것이 아니다

> **(직접 인용 없음)**
> 바울서신을 예로 들 뿐, 구절 인용 없이 논리로 전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바울서신을 주고 싶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바울을 준비시키셨다."

📜 12. 인간적 자질의 영향: 주권적 예비하심

흔한 반론이 있다. 저자의 인간적 특성이 글을 제약하므로, 사람을 거쳐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흔히 스테일드글라스로

잃는다는 것이다. 워필드는 되묻는다. 그 창의 색을 건축가가 처음부터 원하는 빛깔로 설계했다면 어떤가? 저자의 개성 자체가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에 입히려 하신 색깔로 빚어진 것이라면 어떤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계시와 영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섭리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준비 과정이 그분의 손 안에 있었다. 역사서를 쓴 사람(역대기,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경우, 하나님은 교훈을 담도록 사건 자체를 이끄셨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전할 사람을 출생·훈련·경험·은사로 준비하셨다. 시편 기자는 타고난 기질·부모·환경·경험을 통해 바로 그 감정을 바로 그때 노래하도록 준비되었다. 교리 서신의 저자는 지적 깊이와 추론하는 습관을 갖추고 바로 그 논증을 요구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섭리 말고 무엇이 더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1. 반론: 인간 개성이 말씀을 오염시킨다
2. 스테인드글라스 색도 건축가가 설계했다
3. 하나님은 섭리·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4. 역사가·시인·서신 저자 모두 맞춤 준비
5. 남는 질문: 섭리 외에 무엇이 필요했나?

> **(직접 인용 없음)**
> 역대기·누가복음·사도행전, 시편, 교리 서신을 책 단위의 예로 듦

📜 13. '섭리' 너머의 '영감'

워필드의 답은 간단하다. 성경이 사람의 능력을 넘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목적만 없다면, 섭리만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섭리는 '이끄심'인데, 이끄심은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만 데려갈 수 있다. 사람의 타고난 능력을 넘어서야 한다면 이끄심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서 긴 준비 과정 끝에 좁은 뜻의 '영감'이 더해진다. 성령은 섭리와 은혜로 준비된 사람의 작업 안에서 함께 움직이신다. 그래서 글은 저자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면서도, 사람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신적 성질을 갖게 된다. 영감의 가치는 두 가지다. 첫째, 글에 신뢰성·권위·깊이·

양심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게 한다. 그래서 독자는 '사람 저자를 믿어도 될까' 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

1. 섭리 = 이끄심, 사람 능력의 한계까지만
2. 능력을 넘는 성질에는 영감이 필요
3. 영감은 긴 과정 끝에 더해진 특별한 활동
4. 가치①: 신뢰성·권위 등 초인적 성질
5. 가치②: 독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

> **(직접 인용 없음)**
> 앞 절들의 성경 증언을 바탕으로 한 신학적 추론

📜 14. 신적 행위에 대한 신약성경 저자들의 증언

신약 저자들도 성경이 수 세기에 걸친 하나님의 여러 활동으로 생겨났다고 인식했다. 첫째, 그들은 역사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읽었다. 예전에 기록된 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사건 자체가 우리를 깨우치는 본보기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워필드는 이 해석 원리를 뒷받침하려고 퀴퍼(Küper)와 페어베언(Fairbairn)의 말을 인용한다. 구원의 역사는 점진적이고, 예언적 요소가 배어 있는 큰 계획의 일부라는 내용이다. 둘째, 저자들은 자신이 날 때부터 준비되었다고 이해했다. 바울은 갑작스러워 보이는 부르심을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과정의 한 단계로 보았다. 셋째, 그들은 자신이 겪은 은혜와 고난이 남을 섬길 준비였다고 말한다(고린도후서 1:4-6). 따라서 저자들이 '성령께 실려 기록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오랜 섭리적·은혜적·기적적 준비 위에 더해진 하나님의 최종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기록'은 단순한 받아 적기가 아니라 자료 조사, 사실 수집, 결론 도출, 교훈의 정식화까지 포함한다. 영감은 이 사람의 활동과 함께 일하며 결과물에 초자연적 성격을 준다. 섭리나 은혜처럼 사람의 활동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1. 역사 자체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남
2. 바울의 부르심도 모태부터의 과정

4. 영감 = 긴 준비 위의 하나님의 최종 행위

5. '기록'은 조사·추론·정리 전체를 포함

로마서 15:4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과 소망을 위함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4:23-24

아브라함 기록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됨

>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고린도전서 10:6, 11

광야 사건이 본보기로 '일어났고' 우리를 위해 기록됨

> **고린도전서 10:6**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 **고린도전서 10: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1:15-16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신 바울 — 저자의 긴 준비

>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1:5 · 이사야 49:1, 5

모태 부르심의 구약 병행(각주 참조 구절)

예레미야 1: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49:1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사야 49:5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고린도후서 1:4-6

받은 환난과 위로가 남을 위로할 준비가 됨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 15. '영감'과 '계시'

흔히 영감과 계시를 엄격히 구분하라는 충고를 듣는다. 계시를 좁게 '하나님이 바깥으로 드러나심'이나 '말로 직접 알려 주심'으로 이해하면 이 충고는 더 강조된다. 워필드는 그래도 둘의 차이는 서로 다른 '속'(屬, 큰 갈래)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갈래 안의 서로 다른 '종'(種, 작은 갈래)의 차이라고 말한다. 영감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뜻·일·목적을 사람에게 알리시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 곧 계시의 한 방식이다. 따라서 모든 계시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한다. 바울의 말대로 사람을

계시의 일부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행위 가운데 하나다. 넓은 뜻의 신적 기원(모든 섭리·은혜·초자연적 사역)이 성경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계시의 여러 방식 가운데 성경에 고유한 자리를 준 것은 그 절정인 좁은 뜻의 영감이다.

1. 영감과 계시는 같은 갈래 안의 두 종류
2. 영감도 계시의 한 방식이다
3.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4. 성경은 계시의 기록이자 계시 자체
5. 성경의 고유한 자리는 좁은 뜻의 영감에서

> **디모데후서 3:15**
>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 계시로서의 목적
>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디모데후서 3:16-17**
> 신적 기원 때문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함
>
>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16. 성경은 신적-인간적 책인가?

어떤 학파는 성경을 '신인(神人)의 책'이라 부르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빗대어 설명했다. 워필드는 이 비유가 중요한 사실을 짚고 어느 정도 맞다고 인정한다. 성경에는 인간적 측면과 신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비유는 쉽게 지나치게 밀어붙여진다. 성경에는 '위격적 연합'이 없다. 위격적 연합은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된 것을 말한다. 성령의

힘이 협력한 신인적 '작품'이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희미한 닮음만 있다. 그래도 그 희미한 닮음에서 하나는 배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참된 인성이면서도 신성과의 결합 밖에서 작동하지 않으므로 죄나 오류에 빠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인간적 요소도 사람답게 일하고 흔적을 남겼지만, 오류 없는 신적 인도 아래에서만 일했기에 사람에게 흔한 오류가 생길 수 없었다.

1. 성육신 비유는 부분적으로만 맞다
2. 성경에 위격적 연합은 없다
3. 그리스도 = 신인적 인격, 성경 = 신인적 작품
4. 인간적 요소는 실제로 일하고 흔적을 남김
5. 신적 인도 아래 일했기에 오류는 없다

> **(직접 인용 없음)**
> 기독론 개념을 써서 비유의 한계를 따지는 신학적 논의

📜 17. 신약 저자들의 성경으로서의 구약

신약 저자들에게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약이었다. 디모데후서 3:16의 “모든 성경”도 직접적으로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안 유대인의 거룩한 책을 가리킨다. 그래서 신약의 영감 증언은 구약에만 해당한다는 말이 종종 나온다. 워필드는 이것이 과장이라고 본다. 지금 따지는 것은 성경의 '범위'가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이다. 신약 저자들은 영감을 자기들에게도 확장해서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옛 언약의 일꾼보다 성령을 덜 가졌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가르침의 내용뿐 아니라 표현까지 성령께 돌렸다. 최고의 확신으로 말하고, 완전한 권위로 명령했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주의 명령으로 인정하는지를 성령 받은 사람인지 가리는 시험으로 삼았다. 이 주장은 말로 한 가르침만이 아니라 편지에도 해당한다(고린도전서 14:37; 데살로니가후서 3:14). 이는 그들이 구약 저자들에게 돌린 '영감'과 매우 비슷한 것을 자신들에게도 돌렸다는 뜻이다.

1. 신약 저자들의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약

3. 새 언약 일꾼도 성령으로 말했다
4. 내용과 표현을 모두 성령께 돌림
5. 편지에 쓴 말에도 주의 권위를 주장

디모데후서 3:15-16

'모든 성경'은 직접적으로 디모데가 알던 구약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고린도후서 3:5-6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넉넉하게 하심

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2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함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2:13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말함 — 내용과 표현 모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7]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2, 14 · 데살로니가후서 3:6, 12

주의 이름으로 내리는 권위 있는 명령

데살로니가전서 4:2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후서 3: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고린도전서 14:37

이 편지가 주의 명령임을 인정하는지가 영적 사람의 시험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데살로니가후서 3:14

편지에 쓴 말에 순종하는 것이 교제의 조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결정적인 증거는 신약 저자들이 서로의 글을 구약과 같은 '성경' 범주에 넣는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18에서 “성경에 일렀으되”로 두 구절을 나란히 인용한다. 첫째는 신명기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이고, 둘째는 누가복음의 “일꾼이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이다. 그러니 나중에 쓴 디모데후서의 “모든 성경”에서 누가복음 같은 신약의 책이 빠졌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도 성경의 예언이 성령께 실려 나왔다고 말한 바로 그 편지에서, 바울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은 자리에 둔다. 바울은 '받은 지혜대로' 썼고, 그 글을 억지로 풀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신약 저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하나의 책 묶음이었다. 동시에 성령이 주시는 대로 새 책이 더해지는, 자라는 묶음이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새 책이 포함되는지는 세부 문제다. 사도들이 인정한 책들과 그들에게서 책을 받은 교회가 인정한 책들을 합치면 우리의 신약이 된다. 결론은 이렇다. 신약 저자들이 쓴 특별한 의미의 '성경'이라는 이름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책이라면, 같은 권리로 그들이 성경에 돌린 '영감'도 가진다.

1. 바울이 누가복음을 신명기와 함께 '성경'으로 인용
2. 베드로가 바울서신을 '다른 성경'과 나란히
3. 성경은 하나의 책 묶음이면서 자라는 묶음
4. 어느 책이 포함되는지는 세부 문제
5.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영감'도 가진다

> **디모데전서 5:18**
> 신명기 25:4와 누가복음 10:7을 함께 “성경”으로 인용(텍스트판의 '5:15'는 오기)
>
>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 **신명기 25:4**
> 첫째 인용 — 구약
>
>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 **누가복음 10:7**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베드로후서 3:15-16

바울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은 자리에 둠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1:20-21

같은 편지에서 성경의 예언은 성령께 실려 나왔다고 함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성령이 성경 저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작용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전히 믿을 만하고 권위 있게 되도록 하신 일이다.

θεόπνευστος(테오프네우스토스)

디모데후서 3:16의 헬라어로, '하나님이 숨으로 내쉬신'이라는 뜻이다. 성경이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산물임을 말한다.

베드로후서 1:21의 '감동하심을 받은'의 원어로, 배가 바람에 밀려가듯 '실려 가는'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의 신탁(τὰ λόγια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뜻으로, 신약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인다(로마서 3:2).

완전 영감
성경의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 모든 세부까지 전체가 영감되었다는 생각이다. 이 장에서는 '모든 부분, 모든 표현까지'라는 말로 나타난다.

축자영감
생각만이 아니라 낱말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는 생각이다. 이 장에서는 낱말('신')·시제·단수형에 논증을 거는 예로 뒷받침된다.

섭리
하나님이 역사와 사람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일로, 성경의 재료와 저자를 오랫동안 준비한 바탕이다.

특별계시
자연을 통해 누구에게나 보이는 계시와 달리,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말씀과 사건으로 특별히 알려 주신 계시다.

위격적 연합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고 하나로 결합된 것이다. 워필드는 성경에는 이것이 없다고 말한다.

ad hominem / e concessu
앞의 것은 상대의 사람됨이나 상대만의 생각에 기대는 논증이다. 뒤의 것은 양쪽이 함께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정당한 논증이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이 장의 결론

- 성경은 하나님이 '내쉬신' 말씀이다. 영감은 사람의 글에 숨을 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성경을 만들어 내신 일이다.
-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성경이 이르되”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같은 말이었고, 그 권위는 낱말과 문법 형태에까지 미쳤다.
- 하나님은 섭리로 재료와 저자를 오래 준비하셨고, 마지막에 사람의 능력을 넘는 성질을 주는 좁은 뜻의 영감을 더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책이자 온전히 사람의 책이다.
- 영감은 계시의 한 방식이며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 영감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미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6편 · '하나님의 감동으로' · 영감이란 무엇인가
- 성경론 7편 · 사람의 글, 하나님의 말씀 · 유기적 영감
- 성경론 8편 ·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나 · '성경이 이르시되'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